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 한인사회: 순환이주 주재원 사회에서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

김 지 훈**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공동체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인구는 2010년대 초반부터 2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 기준으로 21,406명의 한인이 거주하여 재외 한인 규모에 있어서 전세계 18위,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합한 규모는 3천명을 넘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규모와 구성원의 배경 면에서 다양해진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그간 어떻게 형성, 변화해왔는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은 어떠한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계 대기업 주재원, 글로벌기업 전문직과 서비스직, 한인 사업가와 자영업자, 주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한인, 싱가포르 한인 조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싱가포르의 이민정책과 발전전략 그리고 한국기업의 세계화, 한국인의 글로벌 이주가 서로 맞물려 형성 변화하였는데,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극소수의 한인 영주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8S1A5A2A01035784)이며,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았음.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Asia Research Institute는 2019년 6월-8월 Visiting Senior Research Fellowship을 통해 학자들과의 교류하고 연구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감사드린다.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jhkim@inha.ac.kr

자와 체류자가 거주하던 ‘한인사회 형성기’, 1980-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재원 사회 팽창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는 ‘이주한인 다양화기’, 2010년대는 ‘글로벌 이민사회기’이다. 2000년대 이후 한인사회의 팽창은 글로벌 도시의 분절적 노동시장구조, 고용유연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과 소규모의 한인 경제(ethnic economy)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사회와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대해서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한다. 직업, 소득, 연령, 젠더, 이주이력, 기타 사회인구학적 배경 면에서 다양한 한인 구성원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점은 흥미롭다. 한인구성원의 일과 삶 경험, 공동체적 특징의 해석에 있어 글로벌 도시의 노동시장구조, 글로벌기업의 고용 관행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이 한인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청장년층의 생애단계적 커리어과업 및 가족과업 몰입도 공동체 수준에서는 알고 좁은 선택적 도구적 교류를 실천하는 이유로 보인다.

주제어: 싱가포르, 한인사회, 순환이주, 주재원 사회, 글로벌 이민, 글로벌 기업, 글로벌 도시

I. 들어가는 말: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

싱가포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경쟁, 살아남기 위한 투쟁.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그런 한인사회가 형성 되지 못 했어요. ... 자기한테 올인(all in)을 해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서바이벌(survival)하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컨트리뷰션(contribution 기여)할 수 있는 저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 바깥에서 보면 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개인에서 보면, 엄청난 생활 스트레스에 힘든 게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여기서 즐면 죽는다.’ (연구자: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그냥 넘어가면

내일 금방 표가 나니까. ... 내가 여기 말고 ... 인도네시아나 그렇지 않으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 근처로 월남이나 이런 데를 가서 살면서 사업을 했었으면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0대, 남성, 사업가, 영주권자, A씨)

30년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해온 전현직 한인회장을 포함한 한인 사회의 원로를 만났을 때나, 몇 년에서 10년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한국인을 만났을 때나,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치열한” 사회이며 “조용한” 사회라는 것이다. 해외 생활 45년 중 38년을 싱가포르에서 거주한 7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로 은퇴와 노후 준비를 꼼꼼히 해온 싱가포르 영주권자 A씨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싱가포르 한국인들의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개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을 중요한 비교의 준거로 삼는다. 2명의 한인회장이 서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뉴욕한인회 (Semple and Ham 2015)나 한인회장직을 둔 갈등과 반목을 볼 수 있는 베트남(채수홍 2017), 한국의 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하는 한인 관련 사건사고가 잦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의 한인 사회도 함께 언급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인사회에 대한 단순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이 한국, 동남아, 남아시아 등 아시아권 다른 국가에 직접 연계된 싱가포르 소재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싱가포르 한인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는 본인 혹은 자녀가 유학, 주재원 및 기타 해외 경험을 가지고 그 직간접 체험에 근거를 찾고, 때로는 주변 지인들과 싱가포르 사회와 글로벌 이동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집합적으로 쌓고, 나누며, 축적하는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여러 국가를 비교하면서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국가의 한인사회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중산층 한인들의 ‘구별짓기’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가까운 한인들끼리 현지 생활, 자녀 교육, 커리어에 대한 지식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고 바라보는 A씨의 인식은 다양한 구성원 집단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이해하려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실한 개념일까?

오랫동안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지켜본 연구자가 보기에 2019년 현재 시점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약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양적, 질적 변화를 경험했다. 첫째, 1990년대 기간 동안 3천-5천명 내외 수준이던 한인 규모는 2000년대 들어 매년 점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2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기준으로 21,406명이 한인이 거주하여 재외한인 규모에 있어서 전세계 18위, 동남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외교부 2019). 둘째, 2000년대부터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대표되는 순환이주형 한인 외에도 싱가포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영주이민형 한인이 주류층의 다른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체 수준에서 이민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현지 국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 규모를 비교한다면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한인 이민공동체를 형성했다. 셋째,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과거 시기와는 이주 동기와 경로, 기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구분되는 한인들의 유입되면서 구성원의 다양화가 두드러진다. 넷째, 싱가포르, 한국, 제3국을 이동하는 순환이주, 재이주 한인들의 지속적인 유출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한인사회는 그간 어떻게 형성, 변화해왔는가? 싱가포르 한인의 사회계급적 특성과 인

구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자는 1999년-2002년 그리고 2006년-7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살면서 싱가포르 한인사회 구성원 중 일부 세부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가깝게 관찰한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수행한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접근한다(김지훈 2006, 2010, 2011, 2014, 2016; Kim, 2010, 2012, 2015).

20세기 후반 시점에서 보자면, 다른 동남아 국가의 한인사회처럼, 싱가포르의 한인사회는 순환이주 한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인사회였다. 한국 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이 싱가포르 한인 중 상당한 비중을 이루고 있다는 점, 서구 이민국가와는 달리 현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들의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인회를 포함한 주요 한인 단체장과 임원진 등 주류 집단을 구성하는 한인 엘리트층이 주요 한국기업의 법인장 혹은 주재원을 역임한 현지 사업가로 구성되어온 역사가 길기 때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합한 규모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다(외교부 2019). 20년 전인 1999년 한인 중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31명, 영주권자는 358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그간 시민권자는 14.4배, 영주권자는 7.4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주자의 증가를 유도한 이민 정책의 변화로 주목할 것은 어떠한 점이 있을까? 1997년 고축통 총리의 연설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된 외국인재유치정책(김지훈 2006)은 고학력 전문직 한인들이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기업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유학생과 글로벌 이주 이력을 갖춘 한인이 싱가포르로 이주

할 유인과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였다(Kim 2010; Ng 2010; Olds 2007). 이후 다양한 배경의 한인과 한인 이민자가 상당한 한인사회로 변모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여전히 ‘주재원 사회’(한경구 1996; 이승은 2014)로 보는 듯하다. 이 글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시점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20세기 시점의 싱가포르 한인사회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한인사회 그리고 서구 이민사회의 한인사회와 비교해서도 주목할 특징을 갖고 있다. 한인사회의 변화는 연구방법과 연구과정을 살펴보는 다음 장 이후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싱가포르 사회 맥락과 결합되어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로 특징 지어질 수 있으며, 한인사회 내 사회계급적 특성과 인구구조적 특성이 결합되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이자, 좁고 얇은 수준의 교류를 통해 구별짓기와 선 긋기가 분명한 ‘분절화된 한인사회’가 특징적임을 제시하고 이를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심층면담이나 담론에 따르면, 직업, 업종, 연령, 성별, 이주이력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 면에서 다양한 한인들이 본인의 업종 모임, 교회와 성당 등 종교 모임, 동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에는 선별적으로 소속하기를 선택하고 공동체 수준의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하지만, 한인회, 여성회 등 한인 공동체 수준의 모임은 관심을 두지 않는 도구적 모임 지향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특징의 해석에 있어 커리어와 자녀관련 과업에 몰입하는 생애시기인 청장년층이 절대다수인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사회인구학적 구조를 결합하여 이해될 필요가 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이주 경로와 배경을 가진 싱가포르 한인 사회의 주요 구성원

집단에 대한 생애사적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 한인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단면을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이민 연구는 현대 사회학의 시작과 함께 하며, 21세기 현재 사회과학 전반에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손꼽힌다. 100년 전 발간된 사회학 연구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과 유럽의 폴란드계 농민 연구’는 이민 연구의 기원이면서, 미국과 폴란드 두 나라를 장기간 체류하면서 양국에서 방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한 초국적(transnational), 다현장(multi-sited) 연구 방법의 기원이 되는 ‘원조’ 연구이기도 하다(Thomas and Znaniecki 1918-20). 순환이주형 주재원과 글로벌 노마드에 대한 사회학자의 관심 또한 역사 깊다(Cohen 1977). 본 연구는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이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맥락에서의 이주자로서 살아가는 한인의 인식, 경험과 실천에 주목하여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글로벌 도시의 노동시장구조와 글로벌기업의 고용관행은 대조적인 사회계층의 이주를 추동하고 이주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과(Sassen 1991; Yeoh 2006), 개인과 공동체 수준의 초국적 이동성과 이동 궤적은 역동적이며 다면적인 과정임도 주지한다.

특히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주류와 비주류를 이루는 한인구성원들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생애단계도 중요하게 다루며 분석한다. 한국의 주요대학 출신 중산층 주재원이 주류를 차지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순환이주형 주재원 중심’ 한인사회로부터 다양한 계급적, 직업적, 이주 이력을 가진 한인들의 유입을 통해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한인사회 맥락에서 한인들이 개인, 가족, 집단

수준에서 실천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잘 포착하는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원은 싱가포르에서 장기간의 현지조사 동안 수행하여 수집한 개별 심층면접자료(in-depth interview)이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접은 모두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녹음된 심층면접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사하였다.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현지의 대사관 등 한인 기관과 한인 단체, 한인 단체의 발간 자료와 웹사이트 게시물 등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도 활용하였다. 아래 언급한 한인 단체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전현직 대표자를 만났고, 주요 행사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아울러, 통계 자료 등 싱가포르의 정부기관 발간 자료와 싱가포르의 한인 및 싱가포르인 이주 전문가에 대한 면담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2월, 2018년 1월과 8월, 2019년 1월과 7-8월에 걸쳐 다섯 번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60명 이상의 개인 심층면담 인터뷰, 10명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했다. 2017년의 현지조사는 한인사회의 주요 구성원 및 한인단체 관계자(싱가포르한인회,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한국대사관,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KOTRA 등), 전문가 집단(싱가포르 한인 언론사 전현직 편집장과 발행인, 한국인 교수 등), 그리고 금융업, IT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종 등 지식기반 산업의 전문직 이주자, 글로벌 체인 호텔에 근무하는 한인 서비스직 이주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했다. 2018년의 현지조사에서는 전문직 한인, 노동이주 경험 한인, 한국 대기업 현직 주재원과 배우자, 사업가와 자영업자, 주부, 조기유학자녀 동반 어머니 등 다양한 한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한인여성회, 생명의 전화 등 한인단체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 2019년의 두 차례 현지 조사에는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기업 전문직, 청년 이주자

그리고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에는 연구자가 2006-2007년 동안 수행한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 및 글로벌 기업 근무자 중 현재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와의 면담도 수행했다(Kim 2009, 2010, 2012). 뿐만 아니라,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해 온 5명 내외의 한인도 방문할 때 만나 한인사회의 현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비공식 면담을 수행했다. 다양한 나이대, 직업군, 이주 이력을 가진 한인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한인사회와 싱가포르 사회 전반의 변화 중 주의 깊게 파악할 현지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연구참여자를 익명으로 표기한다. 이는 연구윤리상 필요하지만, 싱가포르 한인사회 구성원 사이에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넓고 민감하다는 점에서 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장의 경우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한인 사회’라는 말이 늘 회자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신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이주 연구자로서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서 각각 5년 이상 살면서 싱가포르, 뉴욕, 런던의 한인사회를 접해온 경험을 갖고서 단일 사례로서 싱가포르 한인 사회를 조망하고 있음을 독자를 위해 밝힌다. 물론, 연구자로서의 개인적 경험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 연구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약 1년 9개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싱가포르 한인 주재원과 교육이주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김지훈 2006, 2010; Kim 2010, 2011, 2012, 2015). 201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싱가포르 한인 이

주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김지훈 2014; Kim 2016), 자카르타와 하노이의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도 있다.

Ⅲ.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한인사회 변화: 한인사회의 형성과 구성원 다양화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어떻게 형성 변화하여왔을까? 1980년까지 5백명 미만의 한인들이 거주하던 싱가포르가 2010년대부터 2만 명 이상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인들이 거주하게 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시기별 구분과 특징, 한인사회 변화의 중요 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한국 기업의 세계화와 글로벌 한인 이주 그리고 글로벌 도시이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발전전략과 이민정책이 비슷한 시기 조응하여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재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공동체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념형(ideal type)적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글로벌이민 한인사회’ 유형은 이전 시기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유형이자 또 다른 이념형적 유형인 ‘순환이주형 주재원사회’와 더불어 다른 동남아의 한인사회 나아가 재외 한인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글로벌이민 한인사회 유형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과 같은 글로벌 도시의 여러 민족공동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용국가(host society)에 영주하는 이민자, 주재원과 노동이주자와 같이 출신국가(origin country)로 수년 내 귀환하는 순환형 이주자, 다른 국가에 이민 후 재이주(repeat migration)한 같은 민족집단의 재이주자가 공존하는 민족 공동체”로 정의한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 기간 동안 디아스포라를 통해 초기 한인

사회가 형성되고 오랫동안 유지된 일본, 구소련 지역 국가, 중국 등의 한인사회(‘디아스포라형’ 한인사회), 1960-70년대 광부, 간호사 등 초청노동 이주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일 등의 한인사회(‘초청이주형’ 한인사회), 농업이주를 경로로 인근국가 재이주 혹은 직업 전환을 통해 한인사회가 형성된 남미의 한인사회(‘이민·재이민형’ 한인사회)와도 구분되는 한인 이주 유형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본다(윤인진 2014; Min 1990, 2001).

<표 1>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시기별 구분

시기 구분	한인사회 형성기	주재원 사회 팽창기	이주한인 다양화기	글로벌 이민 사회기	
연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싱가포르	이민 정책 개요	이주 및 영주 제한	이주 촉진 영주 제한	이주·영주 촉진 (고급인력 유치정책)	이민 정책 조정기
	주요 발전 정책	글로벌 물류 허브 정책 등	글로벌 금융 허브 정책 등	글로벌 교육 허브 정책 등	고급 기술 인력과 혁신 경제 기반 글로벌 도시
싱가포르 한인사회 주요 구성원 과 특징	극소수의 한인 영주자 및 체류자	한국 대기업 파견 주재원과 그 가족 중심 한인 사회, 건설업 남성 노동자와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일부 연도에 대규모 유입	조기유학 청소년 및 학부모 대규모 유입, 주재원, 유학생 출신 영주권 취득자 증가	영주권 취득자 및 영주권자의 시민권 전환 증가, 이주 2세대 및 3세대 한인 가시화, 글로벌기업 근무 한인 증가	

<표 2> 싱가포르 한인 수: 1968-2019년

	1968	1969	1970	1972	1973	1974	1975	1977	1978
총계	34	44	59	171	157	230	261	442	544
시민권자	-	-	-	-	-	-	-	-	-
영주권자	5	5	5	2	7	1	8	15	16
체류자	29	39	54	163	150	229	253	427	52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630	809	622	4274	5315	8457	5583	3697	2800
시민권자	-	-	-	-	-	-	-	-	-
영주권자	19	25	49	29	30	32	32	30	30
체류자	611	784	N/A	4245	5285	8425	5551	3667	2770

	1989	199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총계	2812	2485	2807	3654	3768	4120	4150	4960	5820
시민권자	-	-	17	17	19	19	31	90	35
영주권자	30	33	68	177	181	219	358	470	714
체류자	2782	2452	2636	3460	3570	3882	3734	4360	5071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총계	6952	12656	13509	16650	20330	19450	20346	21406
시민권자	44	53	71	106	157	257	385	447
영주권자	1058	1305	1653	1878	2267	2423	2520	2646
체류자	5850	11298	11785	14666	17905	16770	17441	18313

자료: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가 재구성. 외교부. 재외국민현황 (1968~1990), 해외동포현황(1991~1999), 재외동포현황 (2001-2019). 매년 자료는 전년도말 기준임.
 주:1) 1981년도 자료에는 체류자 자료가 없음. 2) 1972년도의 자료 불일치는 자료원의 오류로 추정함.

1. 1960년대-1990년대 중반: 한인 사회의 형성과 주재원 사회 팽창기

싱가포르의 이주 정책은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1965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인 이민정책 자체가 미비한 시기였고 싱가포르 독립 이전에 정착한 극소수 한인만이 영주권과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물류 중심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 금융 중심지 정책 등의 발전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우, 한국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전문직 파견자들과 그 가족이 편리하게 정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 부여 등 시민권 정책은 투자자 영주권 제도와 국제결혼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10년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자영업과 사업을 하는 한인은 싱가포르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포”로 간주되곤 했다(한경구 1996). 싱가포르의 산업정책과 지역적·글로벌 생산체계와도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선박 수리업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40분 정도 거리인 인도네시아 바탐에 주 사업장을 두고, 목재업의 경우 목재의 벌목과 1차 가공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주 사업장을 두고, 국제적 판매와 유통은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인관련 사업체도 많았다. 38년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해온 70대 A씨는 시기별로 싱가포르 한인사회에서 주류로 참여한 한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60년[대와] 70년[대]는 제일 좋았었던 사업은 아마 내가 보기에
... 목재 관련된 그제 제일 크게 두드러진 거였고, 그 다음에 80년

[대] 들어서면서 건설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고 ... [건설]공사에 ... 일을 했던 사람이 많[았]고, 건설업은 90년대[도 이]어지고 ...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석유화학 그 다음에 ... 배 관련[해운업]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70대, 남성, 사업가, 영주권자, A씨)

1960년대와 1970년대 시기 동안은 한국 기관과 기업 주재원 이외의 이주 흐름이 미미하여 한인 이주의 실질적 ‘공백기’가 상당 기간 존재했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의 경우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동시에, 싱가포르를 엄격한 국경통제와 이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유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 한국인 방문객은 늘어날 수 있었지만, 무비자 체류 기간 이상으로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것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이주허가 체류자로만 존재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기업 주재원 한인이 그 규모와 한인 사회내의 영향력의 측면 모두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싱가포르에 건너온 주요 구성원 집단은 1980년대 한국의 인력송출을 통해 싱가포르의 글로벌 전자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한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이다¹⁾. 500명 정도의 한인 여성들이 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2년 혹은 3년 단위의 근무를 1회에서 3회 사이의 연장 근무를 통해 일했는데, 그 중 200명 내외가 주로 싱가포르인 남성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정착한 것으로 연구자는 추산한다.

순환이주형 주재원사회로서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1990년대 중반

1) 1980년대 일부 연도에는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싱가포르 내의 건설 현장에 한인 노동자가 수천 명 규모로 유입되었으나,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진 건설 노동자는 계약 기간 종료와 더불어 귀국했다.

까지의 싱가포르 이민정책과 싱가포르 거주 한인의 특징에 근거한다. 당시까지 싱가포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한인은 드물었고, 한인 주재원이 수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대다수가 한국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내외의 기간 동안 파견되고 이후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다시 발령을 받는 주재원 근무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외한인과 관련한 자료가 최초로 집계 발간된 1968년부터 1991년 사이 기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은 전체 30명 수준에서 2,807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5명에서 33명으로 30명 내외 수준을 20년 이상 유지하였다(<표 2> 참고). 1990년을 기점으로 파악한다면, 싱가포르의 한인 중 단지 1.3% 정도만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외교부, 1990). 기업 주재원의 경우 대개 몇 년 단위로 후임자로 교체되기 때문에 현지인과는 제한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인사회 구성원과 인맥, 학맥, 업무 연관성 등으로 강한 연계 관계를 유지한다. 파견된 업무 중심으로 일과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관계는 얇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상당수 한국 대기업들이 주재원을 3-5년 단위로 계속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싱가포르 한인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라는 점은 여전히 적실하다.

2.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이주 한인 다양화·분화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의 약 10여년 기간은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팽창하고 구성원의 면에서 다양화한 시기이다. 이전 시기까지 ‘순환이주형 주재원 사회’였다면, 이 시기에는 조기유학 가족과 유학생 등 교육이주자 등 새로운 유형의 이주자가 급격히 유입된 시기이고, 순환근무를 연장하면서 장기간 근무하여온 주재원 중 사업과 현지기업 근무를 통해 정착을 시도하는 한인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시

기이다. 아울러, 글로벌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한인들도 상당한 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한인사회의 규모 확대는 싱가포르 정부가 비슷한 시기 추진한 이주·이민정책과 발전 전략, 그리고 새로운 기회구조와 서로 맞물려 가능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투자이민 제도가 대표적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웠다. 1994년 기준으로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는 등 싱가포르 경제 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고학력 전문직을 심사 후 한정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한경구 1996: 116)²⁾. 한인들이 전문인력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게 한 제도적 변화는 1997년 외국인재유치정책의 도입으로 시작한다(김지훈 2006; Ng 2010). 외국인재유치정책의 일환으로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과 싱가포르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한인들이 영주권을 획득할 실질적 기회와 제도를 제공하였다. 1995년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181명에 불과했는데, 1999년 358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2000년대 들어 해마다 150명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0명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 정책은 2013년 무렵 변화를 맞게 된다(임시연 2016; Yeoh and Lam 2016). 이 시기 동안 주요 구성원 집단의 변화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기업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증가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주 경로에 있어서 초중등학교, 학부와 대학원 기간 중 상당 기간을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경험을 한 후 싱가포르에 진출한 경우가 많아서 영어와 서구 문화에도

2) 2019년 현재 투자자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서는 25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펀드에 투자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익숙하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성장한 이민 1.5세대와 2세대 한인들이 싱가포르 소재의 글로벌 기업에 일하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재원 출신 정착자 증가는 한국 사회 변동과 관련이 깊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이어진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 등 한국 사회의 변동은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적 영향을 끼친 분수령과 같은 시기이고, 이 파고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에도 미쳤다. 대기업 집단의 해체, 대다수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해외에 진출한 주재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주재원 출신 상당수는 사업과 이직을 통해 정착을 시도한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사업과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당수 한인들이 주요 대기업 주재원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사업을 시작한 한인들이다. 일례로, 2017년 현재 삼성 주재원 출신 “OB” 모임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싱가포르에 건설업, 무역업, 선박·해운업, 석유화학업 등 주재원을 다수 파견한 현대, 쌍용, SK, LG, 대우 등 다른 재벌기업집단 주재원 출신들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1997년 이전의 주재원 수를 넘는 규모의 주재원 출신 한인이 거주한다.

2000년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주요 변화 중 조기유학 가족을 포함한 교육이주자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업 환경, 이 시기 공립학교의 경우 매우 저렴한 학비,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의 조기유학 열풍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한국인 조기유학 대상지로 각광 받았다(김지훈 2007, 2010, 2014; Kim 2010, 2015; Okazaki & Kim 2018; Park & Bae 2009). 싱가포르의 조기유학생의 규모는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고점이었던 2008년 기준으로 학생만 최소 2-3천명 수준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³⁾.

3) 상당기간 동안 한국 정부 자료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 범주로만 수집되었고,

2006년-7년 시간 동안 조기유학 가족이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당시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한국인 학생이 주요 학교 당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Kim 2010).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과 렌트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와 2010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된 공립학교 입학의 어려움과 학비 인상 등으로 인해, 공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학업 종료 기간 까지만 머물고 신규 진입자들은 드물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싱가포르 소재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부유층 가족만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와 한인 경제의 성장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친 주요 특징이면서 한인들의 영주화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인에게 호의적인 기회 구조와 수용 맥락(contexts of reception)을 제공하였다(Heisler 2008).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류에 관한 조사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인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심두보 2010: 314). 싱가포르에서 한류는 문화적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인의 현지 정착을 위한 사업 기회로 작동하였다.

한식당의 증가는 현지 거주 한인들과 관광객과 출장자 등 한인사회와 한인 방문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한인 민족경제(ethnic economy)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상가의 가격과 임대료가 비싼 싱가포르 맥락은 한인타운과 한인 민족경제의 확대에 구조적 제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인

이 수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Kim 2010; 홍석준, 성정현 2009).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이민, 이주와 관련한 국가별 자료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만 가능하다.

타운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여개 미만의 한국 식당이 중앙업무지역(CBD)과 탄중파가(Tanjong Pagar) 지역을 비롯한 시내 중심가 지역에 산포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7년 현재 약 300개의 한식당이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200개 정도가 한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한식당, 한국마트, 한국 미장원 등 한국 관련 업체가 싱가포르의 주요 호텔, 쇼핑센터, 관광지 및 업무 지역 대부분에 포진되어 있다. 근래에는 새로운 쇼핑몰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식당의 입점이 계획된다. 탄중 파가 지역의 경우 4~50개의 한식당과 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역 중 하나인 부킷 티마(Bukit Timah) 지역 소재의 쇼핑몰에는 20여개의 한식당, 학원 등 한인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상가와 토지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외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체류 신분 여부에 따라 구매 자격에 제한이 존재하거나 취득세율이 차등적으로 전환되었다. 도시 국가로서 개발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은 정부의 강한 관리 하에 이뤄지고 있어 한인 상가가 밀집된 한인 타운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한인 타운이 기존 상업지역 중 싱가포르 중심가 중 한 곳과 한인 밀집 거주지역 인근에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한인 민족 경제의 규모는 크지 않고 싱가포르인 고객이 중심이 되지만 그 규모는 2000년대와 2010년대 들어 가시적으로 성장했다.

3. 2010년대 - 현재: 이주의 다양화와 글로벌 이민 사회기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싱가포르인을 역차별한다는 사회적 불만이 총선에서 집권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에 대한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선별적인 영주권 및 시민

권 부여 정책으로 선회한 싱가포르 정부의 이민정책(Yeoh and Lam 2016)은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준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중반 변화한 이민정책은 적극적인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싱가포르 정부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이전 시기 보다 더 까다롭게 Employment Pass(이하 EP),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이하 PR)과 시민권을 부여하고, 공립학교의 학비, 부동산 취득세율 등 대우에 있어서 거주 자격별로 차등을 크게 하는 데 있다. 이전 시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EP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소득자의 경우에도 EP가 아니라 S Pass(소득 및 직업에 있어서 고학력 고소득자인 EP와 저소득 노동이주를 위한 Work Permit (이하 WP)로 나누었으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고용 자격 비자로 신설됨)를 발급 받게 되고 이전 시기 별 어려움 없이 PR을 받을 수 있었던 EP 보유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싱가포르 장기 거주 한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들어 한국기업 파견 주재원 규모 이상의 한인들이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기업을 유치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경제와 발전전략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글로벌기업 종사 한인은 앞으로도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주요 구성원 집단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기업에서 일하는 한인의 규모와 이주배경은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한국 지사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은 대부분이 한국 출신 한인이지만, 글로벌기업 본사 파견 주재원의 경우 영어권 국가 출신 한인 2세대나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한 후 채용된 한인 등 글로벌 이주 경험을 갖춘 한인들이 다수이다. 현지 채용 인력의 경우 급여와 혜택 등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특히, 한국 소재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 중에서 본인 주도의 해외 커리어와 자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근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글로벌기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 중 싱가포르 영주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주이민 한인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금융, IT, 바이오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한인이 일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 2008년 이전에 비해 싱가포르의 글로벌 위상이 격상되어 한인 종사자 규모가 역시 주목할 만큼 커지고 있다. 금융, 외환, 채권, 선물 시장 등 싱가포르의 핵심 업종 중 하나인 금융업계의 글로벌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규모도 작지 않다. 2017년의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추산하기에는 한국계 금융기업 주재원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기업에만 5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싱가포르 한인 사회에 새로 등장하거나 주목할 규모의 주요구성원이 된 이주 집단으로 서비스업종의 청년이주자, 유학생 그리고 싱가포르 조기유학 경험 청년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변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신규 유입되는 청년층 이주자의 양극화이다. 전 시기까지는 저임 노동인력 해당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호텔서비스업 종사자의 WP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시작된다. 청년층 이주자의 양극화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종의 청년이주자는 대개 WP 소지자로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20대 청년 한인들이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하면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3천명 내외로 파악된다. 서비스직 청년이주자들은 2000년대 중후반 조기유학 가족의 대규모 유입에 버금가는 규모의 한인사회 구성원 집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주요 호텔, 호텔 내부 식당

과 라운지 대부분에서 한인 청년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에 따르면, 대개 주당 5-6일,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고, 1-2년차의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1400-1600 싱가포르 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월세와 생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열악한 수준의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 역시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연령대와 구성은 변화했다. 2000년대 기간 초중고 과정의 조기유학생이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2010년대부터는 조기유학생은 급감하고 학부 유학생이 많이 늘어났다. 유학생의 경우 싱가포르 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난양기술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등 주요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 100명 이상의 규모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의 원격학위 과정 수업을 운영하는 사립교육기관(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싱가포르에서는 PEI로 불린다. 이하 PEI⁴)에 편입하거나 진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소재 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500-1000명 내외 규모로 추산한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새로운 한인 이주자 집단은 조기유학생 출신 청년층이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무렵, 조기유학생 본인들이 싱가포르 공립 초중고를 상당 기간 거친 후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졸업하거나 싱가포르의 대학을 진학한 경우 싱가포르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 기회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싱가포르 한인 영주권자

4) PEI는 캠퍼스를 갖춘 대학이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 등의 해외 대학의 원격 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업을 제공하는 데, 대부분 건물 하나 혹은 일부로 운영되며 대학보다는 학원에 보다 더 가깝다.

증가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 2세대 청년층, 최근의 청년이주자와 더불어 한인 청년층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 2000년대 기간 동안 단신 조기유학생이나 어머니 동반 유학생은 주재원 규모에 버금가는 주요 구성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019년 현재 20대와 30대 초반의 한인의 경우 영주권자의 대다수는 주재원 출신을 포함하여 현지에서 사업과 자영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장년층과 그 자녀 세대, 국제결혼 한인, 그리고 2000년대 조기 유학을 온 청소년 중 싱가포르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이수한 후 현지에서 취업한 청년층, 글로벌기업에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고학력 전문직 한인 등 네 집단이 중요한 구성원 집단으로 다수를 이룬다.

IV. 한인사회에 대한 한인 구성원의 인식: 왜 치열하고 조용한가?

앞선 장에서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왜 이러한 공유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주요 세부집단 구성원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구성원 다양화는 글로벌 도시 싱가포르에서 전문직과 저임 반숙련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구조 하에 이루어졌다(Sassen 1991; Yeoh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청장년층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한인사회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해당 연령대 한인들의 생애단계적 과업을 고려하여 한인들의 시각과 인식을 해석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조용하고 치열하게” 생활하는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구성원 세부집단별의 시각과 경험을 살펴본다.

한인사회 전 시기를 통틀어 오랫동안 주류층을 형성 유지해오고 있는 주재원 출신 사업가의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자. 60대의 주재원 출신 사업가는 싱가포르 내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이주 경로와 배경이 다를 경우,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관찰한다. C씨에 따르면:

나 같이 주재원 하다가 사업 하는 사람, 일찌감치 와서 각자 자기 알아서 사업하는 사람 그게 묘하게도 잘 믹스(mix)가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요 내가 볼 때 60대 우리 정도만 해도 여기서 노는 생각을 하면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이 사회는 독특해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다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한인 이주 역사]가 오래 되었고, [한인들의] [계]층이 넓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내가 볼 때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리빙 코스트(living cost)가 너무 높은 것도 이유 중에 아닌가 생각해요. (60대, 남성, 한국 대기업 주재원 출신 사업가, 시민권을 신청 중인 영주권자, C씨)

한인 구성원 간에 잘 섞이지 않는 사회관계가 경험되는 이유에 대해 C씨는 주재원처럼 살기위한 생활 물가가 너무 높은 것을 들고 있다. 싱가포르 중산층 이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맥락에서 콘도(condo)라고 불리는 고급 민영아파트, 동일 모델 한국 자동차 값의 3배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승용차,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학원 수강과 과외가 수반되어 교육비가 만만치 않고, 호커 센터와 푸드코트 같은 현지 식당과는 달리 서울 물가를 훨씬 상회하는 레스토랑의 외식비 등 생활 물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세계 주요 도시의 물가를 해마다 보고서로 발간하는 HSBC는 싱가포르의 물가 수준을 세계 최상위권에 꼽는다(HSBC 각년도). 다시 말해, 서울 강남 지역 가격 이상의 아파트 보유 혹은 월세 지출, 서울 강남 물가 수준 이상

을 감당할 기타 생활비가 있어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재원 수준의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소득자의 경우 각자의 일터에서 개인의 커리어 과업에 몰두할 필요가 크다.

한인사회가 세부집단간 교류가 적고, 분절되고 있다는 관찰은 C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0대 중반의 N씨 역시 20여 년간 싱가포르에 살면서, 싱가포르 한인인 최소한 세 집단으로 나뉘어서 교류가 최소화되고 각각 섞이지 않는 분절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 세 티어(tier)가 다 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 워커퍼밋[WP으로] 계신 분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남들과 교류할 생각을 못 하시고 전문직은 프라이버시가 강하세요. 그래서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섞이는 거 싫어해요. 가족들과 오셨기 때문에 가족 위주 생활, 친한 몇 명 그들과 생활하시는 거 같고. 탑 티어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 (40대, 여성, 글로벌기업 전문직 경력의 자영업, 영주권자, N)

N씨가 언급한 세 층(tier)이 존재하고, 서로간의 교류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집단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관찰은 주목할 만한데, 연구자가 보기에 N씨가 관찰한 세 층 보다 더 많은 세부집단으로 분절되어 있다. N씨가 언급한 세 집단 즉,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한 성공한 한인 기업가 그룹, 글로벌 기업의 전문직 그룹, WP로 일하는 서비스직 그룹 외에도, 한국기업 주재원 그룹, 국제결혼 한인 그룹,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조기유학을 경험한 후 성장한 청년층 그룹은 서로 집단 간 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비슷한 배경의 같은 세부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선택적인 교류를 주로 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한인사회 구성원들은 분절된 세부집단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고 본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확장된 점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분절성과 프라이버시 중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까지 고학력 중산층 전문직 이외의 한인 이주자가 이주할 경로와 제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기업 주재원이 한인 사회 구성원의 수 측면에서 다수였던 ‘순환이주형 주재원사회 시기’의 경우 3-4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이 순환 근무를 함에 따라 5년 이상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대상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10년 이상 거주한 한인들은 새로운 ‘주재원’ 출신들을 맞이할 때, 언젠가 떠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간주하고 떠날 가능성이 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의 연결망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른 한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누구와도 깊이 관계 맺기를 주저함을 통해서 소수의 다른 한인과만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도록 한다. 개인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부류의 일부만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은 글로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O씨가 보기에 그렇다. 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한인사회 구성원간의 관계 맺기 경향에 대해서 O씨의 농담, “인격적으로 별로인 사람도 계속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러한 특성을 모두 담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저는 제가 가는 커뮤니티만 가니까. 교회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절도 있을 거고 그런데 비슷할 거예요. 따로따로 놓고 보면 결국 8~90%는 10년 전과 비슷하게 다 바뀐 사람들일 거고, 오래 안 있고, ... 가시고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교포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그게 싱가포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좀 인격적으로 별로인 사람들도 계속 서바이벌이 가능하**

다, 싱가포르. 친구들이 바뀌기 때문에* (40대 후반, 남성, 글로벌 기업 전문직, 시민권자, O씨)

그렇다면, 한인사회 주요 구성원 집단 중 하나인 한국 대기업 현직 주재원과 가족들은 싱가포르 한인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 대기업 법인장들의 경우 한인회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 대우 받지만, 법인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재원들과 가족은 주재원의 경우는 커리어 과업, 다른 가족구성원은 자녀교육 중심의 가족과업에 몰입하며 한인사회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와 연결은 최소화하면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삶은 주재원 가족 단위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 회사에서 파견 전 주재원 배우자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지침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해당 재벌그룹 계열사 중간 간부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E씨는 남편과 본인의 한인 사회 참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 남편의 유일한 친구는 저예요 회사 사람 외, 교회 사람 외에는 저예요. ... 남의 눈에 띄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고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40대 후반, 여성, 한국 대기업 주재원 아내, E씨)

대기업에 중간 간부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약 8년간 싱가포르에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주재원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F씨 역시 주재원들의 일 중심, 가족 중심적 삶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F씨는 순환이주형 주재원사회 구성원의 관계 맺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저도 여기[거주]년수가 8년 차 되다 보니까 또 여기 싱가포르 [한인 사회]문화가 교민사회 문화보다는 주재원 문화 식으로 ‘썩’ 들어 와서 ‘썩’ 빠지는 문화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을 다시 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게 싫었던 것 같고, 오시는 분들마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 [주: 도움주기를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좀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적응되면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50대 초반, 여성, 한국 기업 주재원 아내, F씨)

현재에도 상당한 규모의 순환이주형 주재원이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F씨의 지적은 주재원으로 오래 산 경험자로서 새로 이주해오는 한인과의 적당한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직장 일은 치열하고도 열심히, 일과 후에는 가족 중심의 시간을 보내고 싱가포르 한인사회와는 거리를 두는 관계 맺기 경향은 한국 사회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과도 닮아있다.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다른 구성원 집단은 한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글로벌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의 한인들은 싱가포르의 한인 교회 등 종교기관, 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별 한인 소모임 뿐만 아니라 한인회 활동을 개별적,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크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업가의 시각에서 글로벌 기업 전문직 한인들을 살펴보자. A씨에 따르면:

[고급인력시장의 전문직 한인들]은 한인회라는 큰 그런 어떤 조직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대지 않고, 그냥 각자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 한인회 하고는 별로 유대 관계를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한국 사람, 한국 계열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나라 시민권

을 갖고 있거나 그래요. [현재 싱가포르의 한인 사회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70대, 남성, 사업, A씨)

글로벌기업 근무 한인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혼 남성이 주가 되고 미혼 청년층이 드문 한국기업 주재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이상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경우, 한인회, 한국상공회의소 등 한인 관련 주요 단체의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조용한’ 한인 집단이며, 규모의 면에서는 한국 대기업 주재원의 규모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글로벌기업 근무 한인은 싱가포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주화하는 한인 집단으로 주목할 필요가 크다. 이들의 경우 전문 업종의 소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타의 한인공동체 단위 모임은 매우 선택적으로 참여한다.

30대 초반의 글로벌 금융기업 전문직이며 어린 자녀를 둔 J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거는 물론 사람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싱가포르 한인회 이런 모임들 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굳이 거기서 도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 드렸을 때, 사실 너무 일[이] 바쁘고 정말 딸내미 볼 새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네트워킹을 할 이유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고, 교회는 당연히 교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A대학] 동문회도 자주 가지는 못 하는 편인 것 같아요 ... 큰 행사 있을 때 얼굴 뵙는 거 외에는. (30대 초반, 남성, 글로벌 금융회사 전문직, 영주권자, J씨)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을 살펴보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령기 상당기간을 보내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세계적인 유명대학의 MBA를 취득하고 글로벌기업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다시 취업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D씨는 글로벌 경험을 갖춘 청년세대 전문직의 대표적인 예이다. 서구사회와 글로벌기업을 경험한 바 있더라도, 매우 경쟁적인 싱가포르 맥락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영어가 유창하여 언어의 문제는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영어가 유창한 아시아권 다른 민족출신 전문직의 경우 탄탄한 민족 네트워크(ethnic networking)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경험을 싱가포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끌어주는 것에 대해 과거의 본인의 견해를 재고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업, IT 기업 등 젊은 한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식기반업종에서 한인 전문직 업종별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한다. D씨에 따르면 한인 모임에 참여의 필요성은 과거와 달리 느끼지만, 한인 보다는 한인이 아닌 외국대학 동문을 통해 이직에 성공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글로벌 IT] 회사 가신 분이 얘기 했던 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끌어 주고 이룬다는 게 추하다”, “끼리끼리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여기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 ... 어떻게든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알음알음해서 알게 된 한국 분들[과] [MBA 동문] 라인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 한국 분들은 사실 이렇게 소심해서 그런지 웬만하면 레퍼런스(reference)를 잘 안 해 주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 사실은 레퍼런스를 안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MBA 동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거든요.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도와주고 딱 [회사] 들어와 보니까 제가 잘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

움을 느끼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30대 초반, 여성, 글로벌 IT 기업 전문직, D씨)

D씨의 경우 한인을 포함한 같은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해 참여할 필요성은 느끼게 되지만, 비슷한 나이 대의 기혼자 J씨처럼 어린 자녀를 돌볼 추가적인 부담까지는 없더라도 성과 중심의 글로벌기업 문화 속에서 커리어 중심의 삶에 몰입할 필요가 크다. MBA 취득 후 한국에서 일하던 업종과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에서 같은 기업 싱가포르 지사 혹은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 3년 내외의 기간 동안 파견 근무를 나오는 한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중에서 본인의 해외 커리어와 자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드물었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다(Kim 2009). 40대 중반의 여성 H씨가 그런 경우이다. H씨의 경우 3년의 싱가포르 근무 기간 동안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H씨와 자녀만 싱가포르에서 거주했다. 이와 같은 글로벌기업 워킹맘의 경우 회사 일과 자녀 돌봄에 바쁠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나 다른 구성원 집단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H씨에 따르면:

별로 니즈(needs)를 못 느꼈어요. ... 한국에서도 특별하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충분히 못 만나고 사는데, 굳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40대 중반, 여성,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에서 싱가포르 지사로 파견된 임원, H씨)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과 가족의 경우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른 국가에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한인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와 한인 공동체에 대한 참여 역시 최소화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40대 이상의 경우 앞서 살펴본 30대와는 달리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 남편은 현재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제약회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로 이직하였고, 본인은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주부로 지내는 I씨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자면:

내가 굳이 한인사회에 들어가야 될라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도 이주 하시고 이르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40대 초반, 여성, 남편은 글로벌 제약회사, 주부, I씨)

다음으로는 국제결혼 한인 여성의 시각을 50대와 20대 후반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인 여성 B씨의 경우 싱가포르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살아간다. B씨 역시 이 글의 맨 앞에서 살펴본 A씨와 표현은 다르지만 한인 사회가 조용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싱가포르의 한인들은] 내 일 외에 관심을 안 가져요.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사회가 조용해요. 여유가 있으면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간섭하고, 간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간섭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조용해요 아주.” (50대, 여성, 1980년대 전자회사 노동자로 이주 후 사무직, 영주권자, B씨)

20대 여성 K씨의 사례는 최근의 한인 대학생의 유입 증가로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인 혹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연결되는 국제결혼을 한 한인이 많아지는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씨는 싱가포르의

한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인 동급생과 사귀면서 결혼하고, 글로벌 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K씨는 젊은 국제결혼 한인으로서 ‘조용하고도 치열한’ 그리고 분절적 사회관계가 특징적인 싱가포르 한인 사회가 국제결혼 한인의 경우 더욱 외로운 상황이 될 우려를 보여준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인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혼혈인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 정말 마음 깊이 진심으로 오픈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반(半)한국인 애들 같은 경우나 외국인이랑 결혼한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외롭고 도태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회대[라고 생각해요]. (20대 후반, 여성, 글로벌 회계법인 근무 경력, K씨)

조기유학 학부모의 경우 자녀 학업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교류하는 한인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연결망으로 더욱 좁게 한정되어 있다. 자녀의 초중등과정 조기유학을 위해 싱가포르에 온 후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연중 상당 기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10년 정도 싱가포르에 거주해온 G씨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는 학부모인 다른 한인 여성들의 ‘언니’ 노릇을 하면서 학교에 관한 정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사회관계는 같은 동네의 학부모의 영역에 한정되고 ‘교민’의 경우 본인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G씨에 따르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지냈는 게 없으니까 [한인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여기서 한인 사업 하는 분 교민 분들 그 분들은 아마 다들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50대 후반, 여성, 조기유학 동반 어머니, G씨)

마지막으로,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주자의 시

각과 경험을 20대 남녀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대 초반인 L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체인의 호텔에서 프론트에서 일한다. 앞서 N씨가 언급하였던 “사는 게 힘들어서 남들과 교류할 생각을 못 한다”고 표현한 WP 비자로 일한 지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L씨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직후 싱가포르에서 생애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L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일도 아무 것도 못하겠고, 못 알아듣겠고 동료들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손님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힘들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 힘들다는 [이야기를 친구들 모두] 다 [말]하는데,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고 가면 자신감을 잃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어떻게든 1년 반은 무조건 버틸 거라고. 이런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20대 초반, 여성, 글로벌 호텔 서비스직, L씨)

L씨의 이야기는 첫 직장을 주 50시간 내외 밀도 깊은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호텔에 취업한 20대 초반의 한인 청년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경험이다. 1년의 첫 고비를 넘기고 2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한다. 20대 후반의 남성 M씨는 호텔업계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 중에서도 열심히 향후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다. M씨는 본인의 커리어 조언을 받는 방식에 대해:

제가 ... 주로 만나는 사람은 주로 한국 성당 쪽이다 보니까 거기 나가면 이런 저런 얘기는 주고 받아요. 특히 어른 분들 만나 뵈고 그러면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그 분들 살아가는 얘기 듣다 보면 루트도 알게 되고 한인 사이트도 한번씩 보고 정보 같은 것도 얻기도 하고. (20대 후반, 남성, 글로벌 호텔 서비스직, M씨)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 업종, 연령, 성별, 이주이력의 싱가포르한인사회 주요 구성원의 네러티브를 통해 살펴보았듯, 싱가포르와 싱가포르는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이며, 이는 여러 세부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공감한다. 글로벌기업 전문직과 서비스직, 한국계 기업 주재원등 청년층과 자녀를 둔 중장년층 집단의 경우 본인의 생애단계별 커리어 과업과 가족 과업에 몰두할 필요와 맥락에 놓여있고, 이러한 개인과 가족 수준의 상황은 일 중심, 가족 중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선택적인 사회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맺는말: 순환이주 주재원사회에서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의 변화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미래

이 글은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공동체 수준의 한인사회의 특징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반세기 동안 양적 팽창과 세부 구성원 집단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했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한인사회의 변화를 네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며, ‘순환이주 주재원 사회’에서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순환이주형 주재원 사회는 싱가포르의 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인의 증가에 따라 한국 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이 한인사회 주류가 되면서 형성되었다. 순환이주형 주재원과 가족이 현재에도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이나, 연구자는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글로벌이민 한인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순환이주형 주재원 집단 외에도 다양한 다른 국가에서 이주이력이 있는 글로벌 한인 1.5세대, 2세대와 서구 국가 거주 경험을 갖춘 한국인이 글로벌기업 전문직으로 이주해오고, 장기거주한

한인과 싱가포르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니며 성장한 청년층이 싱가포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여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맥락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1997년 이후 추진한 외국인재유치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과 2000년대와 2010년대 추진한 혁신경제기반 글로벌 도시 발전정책은 전문직 이주, 교육 이주 그리고 장기 거주 한인의 영주화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사회의 조기유학 붐, 한국과 서구 출신의 고학력 한인 전문직의 글로벌기업 진출, 한국 대기업 주재원 출신의 현지 사업과 취업을 통한 영주화는 싱가포르 한인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하게 했다.

싱가포르 사회와 싱가포르 한인사회 공동체에 대해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한다. 직업, 소득, 연령, 젠더, 이주이력, 기타 사회인구학적 배경 면에서 다양한 한인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인사회 구성원 세부집단별로 집단간 교류가 최소화되며 분절되고 있다는 관찰과 경험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도시의 노동시장구조와 글로벌 기업의 고용 맥락 아래에서 한국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 기업에 일하는 한인, 교육이주 가족, 유학생, 국제결혼 한인 등 한인사회 주요 구성원 집단을 포괄하는 싱가포르 한인의 인구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크다. 생애 첫 직장경험 혹은 첫 글로벌기업 경험을 하는 청년층 그리고 아동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중장년층 한인은 생애단계별로 핵심적인 커리어과업과 가족과업에 몰입할 필요가 크다는 점은 공동체 수준에서는 알고 좁은 선택적 도구적 교류를 실천하는 주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고학력 전문직에 매우 호의적이었던 싱가포르 이민정책이 국내 정치적 이유에서 2013년 전후 재검토된 점(Yeoh and Lam 2016; 임시연 2016)은 한인사회에 역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싱가포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향이나 EP 소지자 중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영주권을 소유한 한인 2세대 남성 자녀는 싱가포르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싱가포르 병역을 이행한 한인 남성들도 한국 시민권을 유지한다면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 역시 이행하여야 하는 등 ‘경직된 시민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싱가포르 간의 이주 맥락, 즉 ‘유연한 시민권’(Ong 1999)의 제약을 받는 이주 체제 아래에서 이민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주의 시대’로 상징되는 현재의 세계 사회에서 글로벌 시민권 이론에 대한 합의가 적지 않고, 싱가포르 한인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에도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이주자를 포함한 싱가포르 한인 청년세대와 60대 이상 노년세대 한인 역시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두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크다. 현재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인구구조는 전 연령층 중에서 노년세대의 비중은 대단히 작아서 마치 항아리의 작은 윗부분을 차지하는 듯 그 층이 열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두툼한 항아리 본체가 되는 형상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노동 가능시기 대부분을 싱가포르에서 거주한 한인 중에서 노년기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20대와 30대 초반 젊은층 이주자들이 최근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 주재원이 아닌 글로벌기업에서 전문직이나 저임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의 다양화와 분화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한인인 아직 미완의 연구 영역으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본문에 인용한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 별	나 이	해외 거주	싱가포르 거주	체류자격	직업·지위	교육	월(가구) 소득	비고
A	남	72	45년	38년	영주권	사업가	대출	1000 만원	
B	여	56	32년 1개월	32년 1개월	영주권	사무직	고졸	-	국제결혼
C	남	60	29년	26년	영주권	사업가	대출	-	한국 대기업 주재원 출신 사업가
D	여	32	14년	2년 7개월	EP	글로벌기업 전문직	대학원졸	10000 SGD	미혼
E	여	46	8년 1개월	7년 3개월	DP	주부	대출	1000만원	남편 한국대기업 주재원
F	여	53	10년	4년 7개월	DP	주부	대출	-	남편 한국대기업 주재원
G	여	64	11년	11년	LTVP	주부	대출	-	조기유학 자녀 동반
H	여	45	5년 10개월	3년	EP	글로벌기업 임원	대학원졸	1500만원	글로벌 기업 파견
I	여	42	3년 9개월	3년 9개월	DP	주부	대출	14000SGD	남편 글로벌 제약회사
J	남	32	7년 2개월	7년 2개월	영주권	글로벌기업 전문직	대출	약 2333 만원	
K	여	27	12년 1개월	5년 4개월	영주권	글로벌 기업 전문직	대출	8000SGD	국제결혼
N	여	43	19년 1개월	19년 1개월	영주권	재무 컨설턴트	대출	860만원	국제결혼, 글로벌 금융사 전문직 10년 이상 경력
O	남	49	25년	18년	시민권	글로벌기업 전문직	대출	17000SGD	
L	여	23	4개월	3개월	WP	글로벌호텔 서비스직	2년대출	1600SGD	미혼
M	남	28	3년 4개월	1년 3개월	WP	글로벌호텔 서비스직	대출	1800SGD	미혼

주:1) EP는 Employment Pass, DP는 주부양자 EP의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Dependant's Pass, WP는 Work Permit 임. LTVP는 Long-term Visit Pass로 주부양자인 EP, PR 등 자격자의 부모 등에게 부여됨.

〈참고문헌〉

- 김지훈. 2006. “싱가포르의 외국인재 유치정책 (Foreign Talent Scheme)” 『동아시아 브리프』 1(4): 50-57.
- _____. 2007. “급증하는 싱가포르 조기유학.”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특집기획 35회. 『경향신문』 10월 27일
- _____. 2010. “싱가포르의 교육 산업화와 교육 이주.” 『동아시아 브리프』 5(4): 46-51.
- _____. 2011. “체류자 아내/어머니로 살아가기: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기혼 직장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1(1): 217-246.
- _____. 2014.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동남아시아연구』 24(2): 207-251.
- _____. 2017. “글로벌 이민 추세와 한국의 선택.”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편) 『코리아 컨센서스: 민주주의와 평화』 pp. 170-181.
- 심두보. 2010.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동남아연구소 (편).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서울: 명인문화사. 313-349.
- 싱가포르 한인회. 2013. 『싱가포르 한인 50년사』. 서울: 이지출판.
- 외교(통상)부. 1968-1990. 『재외국민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 1991-1997. 『해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 1999-2016.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윤인진. 2014.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승은. 2014.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한인사회 : ‘이주’와 ‘정

- 착'의 역사 및 전망.” 『한중미래연구』 2: 135-165.
- 임시연. 2016. “싱가포르 외국인 고급인력의 코스모폴리탄 정체성과 시민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수홍. 2017. “하노이 한인사회의 형성, 분화, 그리고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50(3):125-174.
- 한경구. 1996. 『세계의 한민족: 아시아태평양』. 서울: 통일원.
- 황인원 · 김형중 · 김지훈.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22(3): 123-167.
- 홍석준 · 성정현. 2009. “조기유학 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들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4): 239-262.
- Cohen, Erik. 1977. “Expatriate Communities.” *Current Sociology* 24(3): 5-133.
- Heisler, Barbara S. 2008.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From Assimilation to Segmented Assimilation,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to the Global Arena.” C. Brettell and J.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83-111
- HSBC. 2016. *Expatriate Explorer: Achieving Ambitions Abroad*. London: HSBC Holdings Plc.
- Kim, Jeehun. 2009. “Managing Intergenerational Family Obligations in a Transnational Context: Korean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Migrant Families in Singapore” Doctoral Thesis, Oxford University.
- _____. 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 (Kirogi) Children in Public School.”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 _____. 2012. “Remitting ‘filial co-habitation’: ‘Actual’ and ‘virtual’ co-residence between Korean professional migrant adult children couples in Singapore and their elderly parents.” *Ageing and Society* 32(8): 1337-1359.
- _____. 2015. “The “Other Half” Goes Abroad: The Perils of Public Schooling in Singapore.” A. Lo, N. Abelmann, S. Kwon, and S. Okazaki (Eds.),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03-122.
- _____. 2016. “A Case Study on Work Experience of Professional Koreans in Singapore” *The Southeast Asian Review* 26(3): 1-45.
- Min, Pyong Gap. 1990. “Problems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3): 436-55.
- _____. 2001. “Korean Immigrants and the Challenge of Adjustment.” *Contemporary Sociology* 30(4): 377-79.
- Ng, P. T. 2010. “Singapore's Response to the Global War for Talent: Politics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31(3): 262-268.
- Olds, Kris. 2007. “Global Assemblage: Singapore, Foreign Universities, and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Education Hub’.” *World Development* 35(6): 959-975.
- Okazaki, Sumie and Kim, Jeehun. 2018. “Going the Distance: Transnational Educational Migrant Families in Korea” in De

- Guzman, M., Brown, J. and Edwards, C. *Parenting from Af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21-338.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ru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Sassen, Saskia.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ple, Kirk and Jiha Ham. 2015. "Venerable Korean American Group in New York Descends Into Chaos" *The New York Times*, May 25. <https://www.nytimes.com/2015/05/26/nyregion/with-dispute-venerable-korean-american-association-descends-into-mayhem.html>
- Thomas, William I. and Znaniecki, Florian. 1918-1920.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Boston: Richard G. Badger.
- Yeoh, Brenda. S. A. 2006. "Bifurcated labour: The unequal incorporation of transmigrants in Singapor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7(1): 26-37.
- Yeoh, Brenda. S. A and Theodora Lam. 2016. "Immigration and Its (Dis)Contents: The Challenges of Highly Skilled Migration in Globalizing Singapor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5-6): 637-658.

(2019.10.28. 투고, 2019.10.29. 심사, 2019.11.25. 게재확정)

<Abstract>

Korean Community in Global City-State Singapore: From Expatriate Sojourner Community to Global Immigrant Community

Jeehun KIM
(In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cover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community in global city-state Singapore and its community-leve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surpassed 20,000 since early 2010s and there are 21,406 Koreans in 2019. The size of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is the third largest Korean community in Southeast Asia, following that of Vietnam and Indonesia. Especially, the number of Korean Singapore permanent residents and Singapore citizenship holders amounts more than 3,000, which is the largest among Southeast Asia. How can we understand expansion of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over time? What are the community-level characteristics? To answer these question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s of various backgrounds such as expatriate professionals and service-workers in Korean and global companies, self-employed, entrepreneurs, educational migrant families, intermarried Koreans, stay-at-home wives and students as well as professional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various Korean organizations in Singapo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Overall,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has expanded in tandem with developmental and immigration policies of Singapor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companies and global migration of Koreans. Four periods are identified. The first period until 1970s is termed as “formational period of Korean community.’ The second period between 1980s and mid-1990s is termed as ‘expansion of expatriate sojourner community.’ The third period between late 1990s and 2000s is termed as ‘diversification of Korean migrants.’ The fourth period of 2010s onward is termed as ‘global immigrant community.’ Notably, expansion of Korean community since 2000s has been made under the context of segmented and bifurcated labor market structure, flexible employment practices of global firms, and small-size ethnic Korean economy in Singapore.

There is shared consensus about Singapore society and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quite but intensely competitive.”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is shared conception across diverse subgroups. Partly, it is to do with limited everyday interaction across diverse subgroup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n community in Singapore, whose absolute majority is comprised of young adult and mid-aged Koreans. Immersion into key life-course tasks of their career and family among these age groups lead majority of Koreans in Singapore strategically practice shallow and narrow, selective and instrumental engagement at the community level.

Key Words: Singapore, Korean community, circular migration, expatriate community, global migration, global companies, global city